

인원으로 보는 권익한 두 현실

집집마다에 꽃피는 행복의 웃음

오늘날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와 환송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살림집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치는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공화국에서는 일찍이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웠으며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려해줄데 대하여 헌법에도 명시하였다. 여기에 이 땅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웬만한 권력가나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사기 어려워하는 멋진 고풍, 초고층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쓰고 살고 있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눈부시게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기에 입사한 주인공들이 바로 그러하다. 자기일에서 온종일 달리고도 퇴근시간이 되면 떠나기 아쉬워

하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공 리명순, 40여년간 두줄기 케도를 따라 달린 평양철도국 서평양기차관차 기관사 김명인, 눈비 오고 바람세차도 어느 하루 빠짐없이 도로관리를 해온 평천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조길녀, 수십년간 《웃음배낭》을 메고 경제선동의 복소리를 울려온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배우 리순홍, 림뭇무계도전차사업소의 공훈자동차 운전사들인 최홍기, 허명금부부, 수십년세월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들이 한철호, 문성심부부...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많아도 국가가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최중대과제로 내세우고 전적으로 해결해주는 나라, 평범한 근로자들이 호화주택의 주인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가 또 어디 있었는가. 여기에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터치는 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울림이 메아리치고 있다. 《매일 살림집리용허가증에 적혀있는 제 이름을 보고 또 보니 다. 제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로동자부부인 저희들이 이런 집에서 살 꿈이나 꾸어보았겠습니까.》 《화력발전소의 평범한 로동자인 저에게도 나라에서는 이렇듯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요즘은 인생의 행복이란 바로 이런것이지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늘 마음은 즐겁고 기쁩니다.》 《집이 크고 방의 칸수도 많아서 처음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나가는 문도 잘 찾지 못합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련해주어 우리 집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공화국에서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우고 펼쳐는 살림집건설은 어떤 경제체제리용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라고 느낀다면 근로자들과의 복귀되게 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유럽의 한 인권문제전문가는 행성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기만하다. 새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고 행복하게 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며 감동을 표시하였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행복의 삶을 누리는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사회주의를 끝없이, 열렬히 사랑하며 그에 대해 심장으로 노래하고 있다. ... 네 품에선 누구나 희망의 노래 퍼고 바라던 모든 꿈이 꽃피어나네 우리 당 지켜주는 행복넘치는 집 사회주의 사회주의 우리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회주의 내 조국을 본사기자 김진혁

여러는 집값, 이에 대해 남조선사람들은 《미친 집값》이라고 울분을 터치고 있다. 한 시인은 《우리 부부는 모두 정규직인데도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 걸어들이는 세대에서 우리들에 비해 몇백배절이나 많은 월급을 독 메먹는 당국자들이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조차 취하

지 않고있다.》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친듯이 오르는 주거비용에 쫓겨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가는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도 우습게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일반근로자가 20평 정도의 집을 사려면 먹지도 쓰지도 않고 돈을 고스란히 모아도 한세기는 걸려야 할 정도라고 한다. 오죽하면 서민들속에서는 《내 집마련 평생소원》이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류

한평생에도 이룰수 없는 《내 집마련의 꿈》

한평생에도 이룰수 없는 《내 집마련의 꿈》

한평생에도 이룰수 없는 《내 집마련의 꿈》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육아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정정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경에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육아법의 조항들에 그대로 어려 있다. 어찌 있을수 있겠는가. 뚝딱에 보전위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전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기짓가루, 암가루공급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즉시적인 조치도 취해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그 사랑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보장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때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을 최중대정책으로, 최고의 숙원으로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산과 공급이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정당한 체계가 수립되었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며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시기 위한 법률조항도 마련되었다. 지난 한해동안 모든 도시, 군들에서 지역내 젖제품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첫제품생산 및 가공기지를 건설, 확장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지후 평양시 은정구역에서는 50여일동안에 젖가공기지를 새로 훌륭히 염소목장을 갖춘 일떠세우고 젖제품생산에 진입하였다. 평안북도에서는 생산건물들과 설비들이 정비된 새 젖소목장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하여 첫제품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서는 규모가 큰 목장으로부터 시, 군, 협동농장들의 축산기지에 이르기까지 능력을 확장하고 젖가공설비들도 정비보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따라 세웠다. 현존축산기지를 활발히 운영하여 젖제품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실행시킨 자장도에서는

중전보다 하루 2배이상의 젖제품을 생산하여 타카소, 유치원들에 보내주었다. 평안남도에서도 평성, 순천, 안주, 덕천시와 평원, 북창, 대동군 등지에 염소목장들을 지대적특성이 살아나게 일떠세우고 수백정보의 풀판을 새로 조성하여 첫제품을 늘릴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개성시에서는 축산학적요구에 맞게 건축설계를 작성하고 자력건설,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여 여러 목장의 신설, 개건공사를 앞당겨 완수하였다. 지대적특성에 맞는 자연 풀판을 전망성있게 조성하는 한편 목장들의 능력확장목표를 최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량강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젖제품의 질과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박력있게 추진되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심심산골의 마을과 땅방대해의 외진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진함을 모르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후대사랑의 손길이 속속들이 미치고 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 마련된 젖제품을 자랑분으로 하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공화국 어린이들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전명진

어느날 아침 부지런히 이 사짐을 꾸리던 나는 허리가 빼근해 안락의자에 털썩 앉았다. 새살림을 시작할지 몇해 안되는데 그사이 무슨 점이 이리도 많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올랐다. 두리번두리번 방의 이구석 저구석을 살펴보면 나의 눈길은 문득 전화선에 붙어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한장의 종이장에 가뒀다. 빨간색, 파란색 원주필로 포박포박 적어넣은 전화번호들은 모두 안개가 자주 번개하던 사람들의 번호였다. 안개의 필적을 보니 집사람의 얼굴이 새삼스럽게 보고 싶었다. 마치 안개의 사진이라도 들여다보듯 나는 그 전화번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었다. 《진일어머니》, 그것은 우리 인민반장의 집전화번호였다. 몇해전 내가 집에 이사오는 날 인민반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두팔을 걸어올리고 집도 돌려주고 방안정돈도 해주던 마음씨무뎠던 너인, 그때로부터 오늘까지도 집에 간장, 된장이 떨어질새라 깊은 관심을 돌려주는 너인,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불렀던 지난 5월에도 알아누운 안개의 입맛을 돌려세워

주겠다고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끼니때마다 찾아오던 어머니같은 너인이었다. 전화번호후에 그의 푸수한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국철과장》, 그것은 구역인민위원회에서 사임하는 일군의 사무실전화번호였다. 안개의 생일날은 물론 명절날, 휴식일에도 여러가지 식

전전화의 나날에 펼쳐진 국영과수농장창설구상

전전화의 나날에 펼쳐진 국영과수농장창설구상

전전화의 나날에 펼쳐진 국영과수농장창설구상

